셔틀버스 타고 무주반딧불축제 가자

무주군, '카카오 T' 왕복 셔틀버스 첫 운영

무주군이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를 통한 왕복 셔틀버스를 처음 운영하며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

군은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중 금·토·일요일인 9월 4·5·6일과 11·12일 카카오 T를 통해 축제장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외 셔틀버스는 자가용 없이도 전국 각지에서 축제장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운행 지역은 서울(강남·사당·서울·잠실·합정역), 성남(미금역), 수원(영통역), 인천(부평역)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주(상무역·종합버스터미널), 군산, 대구(반월당·용산역), 대전(복합터미널·시청역), 부산(동래·서면역), 순천, 여수, 익산,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전국 13개 지역 21개 정류소다.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를 통한 왕복 셔틀버스를 처음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축제장 내 지남공원 P2 주차장까지 운행하며 당일 왕복과 편도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탑승 시간과 이용요금 확인, 예약은 카카오 T 앱에서 할 수 있다.

무주 지역에서는 축제장과 태권도원, 반디랜드, 구천동 숙박단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같은 기간 별도로 운영해 관광객들의 연계 관광 편의도 높일 예정이다.

이현우 무주반딧불축제지원단 단장은 "30주년을 맞아 교통편 부담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마련했다"며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직접 만나고, 일회용품·바가지요금·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숙박 인센티브 참여업체와 지원 내용,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등을 확정하는 대로 반딧불축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반디의 빛,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과 지남공원, 남대천 등 무주군 일원에서 열린다.

/무주=손홍기 기자

폭염 취약계층 보호 총력

장수군, 전담인력 62명 투입해 독거노인 등 안부 확인 강화

장수군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가동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과 협력해 전담인력 62명을 투입하고, 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에 맞춘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들이 대상 어르신에게 매일 1~2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더운 시간대 외출 자제 등 폭염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도 폭염특보가 지속될 경우 집중관리 대상 어르신 251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안부 확인을 실시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장수군은 장수소방서와 장수군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폭염안전지킴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이 가장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을별 논·밭 예찰과 영농작업 자제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이 무더위쉼터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의용소방대 폭염안전지킴이가 인근 무더위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지원하는 '무더위쉼터 이송지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진안군, 전북자치도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산림청이 실시한 '2026년(2025년 실적)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지난 7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산림행정 추진 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2026년 산림분야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진안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합동평가에서 △산림자원 육성,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목재이용 활성화 등 산림분야 전 항목에서 목표 달성률 100%를 기록하며 전북자치도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이산 북부 탐방 미션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6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일원에서 2026 퐁당퐁당 족욕소풍 '빠망이의 힐링일기-행복조각을 찾아서' 마이산 북부 탐방 미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이산 북부의 신규 관광자원과 야외족욕장, 맨발걷기 길, 마이정원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참여형 이벤트로, 월 선착순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션은 △(마이정원) 빠망이 조형물과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업로드하기 △(맨발걷기 길) 사양제 맨발걷기 길에 숨겨진 퀴즈 맞히기 △(야외족욕장) 힐링족욕 체험하기 △마이농촌테마공원(별헤는마당) 야외족욕장 본부에서 운영하는 보드게임, 캐치볼, 배드민턴 등 체험하기 △마이산 북부 상가 또는 관광시설 이용 5천 원(해당 월) 영수증 제시하기 총 5개로 구성됐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마이산 관광정보센터 또는 야외족욕장 운영본부에서 리플릿을 받아 총 5개의 미션 가운데 3개 이상을 수행하고 야외족욕장 운영본부에서 이를 확인하여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1등 진안고원몰 특산품(10명) △2등 LED 빠망 키캡(60명) △3등 3단 양우산(30명) △4등 냉각 손선풍기(30명) △5등 수건(20명)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부채농가 경영정상화 사업비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 위기가 도래한 농가를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재해 및 부채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다시 임차(최장 10년)하여 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부채 상환을 돕고, 해당 농업인에게 7년에서 10년 동안 매입 필지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임차기간 동안 매도한 필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매시에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환매와 정책요율 환매(고정요율 또는 변동요율 중 선택)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환매가 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최장 10년) 할수 있다.

참여 자격은 영농경력(경영체 최초 등록일기준) 2년 이상의 70세 미만 농업경영체(65세~69세 이하자 진흥구역 농지)로,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 대상은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이다. 매입 상한은 6~11.3만 원/㎡이며, 지원금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15억원, 농업법인의 경우 20억원이다.

이 외에도 해당 지면에 언급되지 않은 요건들이 존재하며, 매년 지침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지사 담당자와 대면상담 및 대표전화(1577-7770 또는, 063-350-7034)로 지원 자격과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동출입국 서비스 운영

장수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고 농번기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등록을 위한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등록을 완료해야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지역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출입국 서비스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장수군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문등록 등 외국인 등록 절차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소방서, 폭염 취약어르신 찾아가는 119건강지킴이 운영

장수소방서(서장 정지현)는 연일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일 장계면 마을 경로당을 찾아 '찾아가는 119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도내 농촌지역에서 밭일을 하던 고령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구급대원 등 4명은 장계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체온,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기저질환 맞춤형 의료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물 자주 마시기 및 충분한 휴식 등 폭염 대비 수칙 △의식 없는 온열질환자 발견 시 119 신고 및 수분 섭취 금지 등 올바른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했으며,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냉방기기·전기 화재 예방 수칙도 안내해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인 임산물 유통·마케팅 교육

무주군은 6일 무주군민의집에서 지역 임산물 생산자 단체와 임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임업인 임산물 유통·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 전문 강사들이 임산물 유통·판매 우수사례를 비롯해 최신 유통·마케팅 동향, 소비자 중심의 상품 기획과 홍보 전략, 판로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임산물 가공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원물 판매 위주의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전략을 소개하며 무주군 임산물의 특성과 생산 여건에 맞는 유통·가공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무주=손홍기 기자